**교제와 나눔**

**ㆍ교회당예배:** 매주일 15시 예배, 비대면예배 16시에 가능.

매주 토요일에 예배참석 신청 마감.

**ㆍ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절기입니다.

**ㆍ예산기초 위한 제직운영위원회:** 오늘 예배 후

**ㆍ헌금:** 비대면 예배드리신 분들은 교회구좌로 송금해 주세요.

**ㆍBible12 개강:** 격주 금요일 오전 8시 온라인**,** 12월 3일(금)부터 시작

**ㆍ귀가:** 송인선

**ㆍ한국방문:** 김한진-박종희

**ㆍ전출:** 송수미/배서연

**ㆍ생일축하:** Thomas Gamerschlag, 김평님

**\*\* 함께 기도합시다 \*\***

1)교회당예배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하소서.

2)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3)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백신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하소서.

4)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삿13:1-14 월/삿13:15-25 화/삿14:1-20 수/삿15:1-20

목/삿16:1-14 금/삿16:15-31 토/삿17:1-13 일/삿18:1-20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94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11월 28일** | **12월 5일** | **12월 12일** | **12월 19일** |
| **예배기도** | 김혜경 | 허지은 | 조경숙 | 송인선 |
| **말씀일기** | 박상훈 | 조준호 | 석호선 | 이미전 |
| **안내위원** | 예배부 |
| **헌금위원** | 우선화 조경숙 | 김학순 서영지 |

**38-48호 2021년 11월 28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116:2)

주일예배 15: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5:00 Teestube

청소년부 15: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1. Advent)**

**(유**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 ※찬송/Gemeindelied ……….......................... 22장 1절 .......................................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115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104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Chor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김혜경 집사박상훈 집사김아영 집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창세기 6:5-22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그 한 사람 노아** ……………………… |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찬송/Gemeindelied .…………………………….. 310장 ……………..………………….봉헌/Kollekte……….......................................................................................................... | 설교자다 함 께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 ‘이겼지만’ (사사기 12장) ◀**

외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평강은 없었다. 입다의 가정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트집잡기 좋아하는 에브라임 지파(8:1-3 참고)가 또 시비를 걸어왔다. 그들과 입다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한쪽은, 왜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도록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고, 또 한쪽은 불렀는데도 왜 도우러 오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결국 내전이 일어나 에브라임 지파만도 4만2천 명이 죽었다. 마음으로 형제의 승리를 축하해주기는커녕, 형제의 득세를 막기 위해 시비 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그 어리석고 참담한 모습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격언 중의 격언 같다. 오늘은 내가 온 몸이 아픈듯 해도 배는 아프지 않으니 감사한 데, 돌아보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픈 것 까지는 몰라도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어쩌면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는, 그가 힘들어 할 때 내가 그를 힘써 도와주는지 보다 그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지를 통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지도 모른다.

딸을 잃고, 형제들과의 내전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입다는 그래서였을까 불과 6년(7)을 사사로 지내고 죽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는 결코 싸워 이김으로써 얻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물론 입다를 믿음의 사람들 목록에 함께 기록(히11:32)하고 있지만, 역사 속에 승리자요 장수였던 그의 생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역사에 이기고 삶에 진 사람”(송광룡의 책 제목 “역사에 지고 삶에 이긴 사람들”을 패러디)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위대한 싸움의 승리자이기 보다는 일상의 삶의 평화를 맛보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조차도 냉혹한 현실을 피하려고만 하는 ‘소시민’적 발상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쟁은 싫다. 아니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3:18).